



[라이프]
펫 동반, 전시관람
오감만족
커피의 진화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동 트기 전부터 경제와 함께... "긍정 에너지로 투자꿀팁 전해요"



NH투자증권

신혜리 아나운서

◆사내 아나운서, 콘텐츠 기획에서 출연까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백화점,
공항 등에서 사내 아나운서를 찾아볼 수 있
다. 일반 방송국의 아나운서와 달리 사내
아나운서는 회사의 소식, 동종업계의 소식
등을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맡는다. 회사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신혜리 아나운서는 "여러 회사의 특성
마다 (사내 아나운서의) 업무가 조금씩
다르다"며 "사내 아나운서는 사내뉴스나
교육 영상, 홍보 영상, 안내방송 등 사내에
필요한 다양한 방송들을 진행한다. 경우
에 따라 기업 프레젠테이션, 일반 사무 업
무 등 다양한 일을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
다.

이어 그는 "저는 NH투자증권 아나운서
인만큼 주식 투자 관련 전문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크
게는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SBS 뉴스에서
NH투자증권 아나운서로 주식시황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MZ세대(밀레니얼+Z세
대)들이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NH투자증권의 유튜브 콘텐츠에도 출연하
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증권사들은 미래 잡
재 고객인 MZ세대의 유입을 위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힘을 쏟고 있
다.

신혜리 아나운서는 "NH투자증권도 최
근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투자가문화로
브랜드 디지털 플랫폼을 오픈하는 등 다양
한 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며 "투자가문화로 브랜드
디지털 플랫폼에서 주식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쉽게 알려주
는 '투자zip', 이색적이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아이디어
살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이 외에도 아나운서이
지만 방송 진행만 하는 게 아니
라, NH투자증권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브랜드 콘텐츠나
사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과
정 전반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덧붙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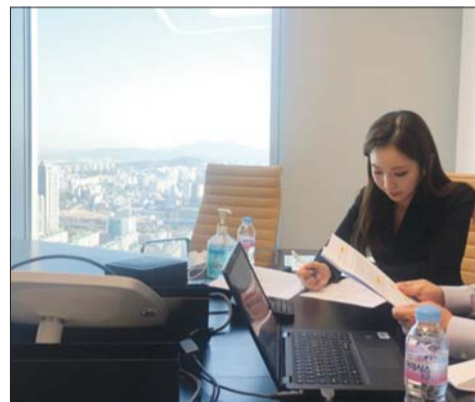
사내 아나운서의 경우 해당 산업
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식들이 필
요하다. 신 아나운서도 NH투자증
권 사내 아나운서로서 매일 경제 뉴
스를 찾아보는 등 공부를 게을리하지



SBS 오 뉴스에 출연해 '주식시황' 소식을 전하는 신혜리 아나운서.



신혜리 아나운서가 NH투자증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살롱'에 출연하고 있다.



신혜리 아나운서가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사내 프레젠테이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SBS 고정 방송부터 콘텐츠 기획·제작
업계 소식 전하고 회사 공식행사 진행
유튜브 콘텐츠로 MZ세대 유입 힘써

밝은 에너지 원동력은 '도전과 성장'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나운서 되고파

않는다.

그는 "증권사 사내 아나운서가 되면서 매
일 수시로 경제 뉴스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
였다. 생소한 용어들은 정리해두고 관련 기
사들을 여러 개 읽어본다. 투자를 할 때나
주식시황 방송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부분
이기 때문"이라며 "처음에는 이해하기도 어
렵고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매일 수십 개의 기사들을 보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게 됐고, 흥미를 갖게 됐다"고 했
다.

◆"일상 그대로가 멋진 사람 되고파"

신혜리 아나운서는 학창 시절부터 아나
운서의 꿈을 키워왔다. 특히 대학생 때 기
부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여
러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는 "큰 돈을 모으기 위해 주위 사람들

부터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이크
를 잡고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
다"며 "기부금으로 미국에서 수십 명의 현
지 대학생들을 모아 한글학교를 열었고, 그
들과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
다. '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일
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다"고 밝혔다.

방송 현장에서 신 아나운서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

일을 하다 지치는 순간 자신만의 극복
방법에 대해 신혜리 아나운서는 "좋아하
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면서 에너
지를 충전하는 편인데, 코로나19 시국이
라 어려울 때가 많다"며 "혼자 자전거를 타
고 한강을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적한 장소에
서 사색하거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무언
가를 찾아보는 편이다. 유튜브 콘텐츠나
영화, 책 등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혜리 아나운서는 '도전과
성장'을 자신의 원동력이라고 꼽았다.

"아나운서로서의 거창한 포부나 꿈보다
는 일상 그대로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요.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
우고 성장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웃음)"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벤투호, 국내파 터키 전훈 출국...카
타르 월드컵 본선행 굳히기 /사진 뉴시스
▲ 2022 프로야구, 4월 2일 개막...올스
타전 7월 16일 예정

▲ 프로야구 위기론에 역행한 FA 시장,
총액 989억원으로 마감
▲ 조코비치, 코로나19 확진 다음 날 '노
마스크'로 행사 참석 논란



▲ 올해 US여자오픈 총상금 1천만 달러
...여자 골프 사상 최대 규모
▲ 임성재, PGA 투어 새해 첫 대회 3R
4위 도약 /사진 뉴시스